

한국판 자기지각 정서경험 척도(K-HIF)의 타당화: 후기 청소년기-초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김 근 영¹⁾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양 재 원²⁾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정서와 정서조절은 2000년대 이후 많은 발달심리학자들이 관심을 기울여왔던 주제이다. 하지만 정서조절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을 이용한 기존 연구의 결과들은 특정 이론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면이 많고 발달궤적을 탐색하는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Walden등(2003)에 의해 개발된 정서성과 정서조절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지인 자기지각 정서척도(How I Feel: HIF)의 한국어판을 개발하고 이를 후기 청소년기-초기 성인기 대상자를 통해 타당화 하려는 의도에서 진행되었다. 이중언어자들로 척도번역 작업을 한 후, 640명의 대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척도타당화의 수순에 맞춰 문항해석, 역번역, 확인적 요인분석, 공준타당도와 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한국판 자기지각 정서척도는 원어판과 매우 유사한 요인구조를 보였으며, 만족스러운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였다.

주요어 : 정서조절, 정서발달, 정서측정, HIF

* 본 논문은 2007년도 한림대학교 교비연구비(HRF-2007-010)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교신저자 :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E-mail : king@hallym.ac.kr)

2)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I. 서 론

정서(emotion)는 심리학에 있어서 최근까지 잊혀졌던 분야였다. 비록 William James(1890)등의 선구적인 학자들이 이미 지난 세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정서에 대한 이론을 발표하였으며, 발달심리학에서는 특히 애착과 관련하여 정서의 역할에 많은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 현대 행동과학에서 정서가 광범위한 관심의 대상이 된 시기는 상대적으로 최근인 70년대 후반부터이다(Oatley, 2004; Stearns, 2000). 이는 5-60년대 심리학의 절대 이론이었던 행동주의의 여파라 할 수 있는데, 직접관찰이 힘들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정서 경험은 과학적 연구 주제의 논의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7, 80년대 이후 정서에 대한 관심이 학계 내에 다시 대두함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이 정서경험이 개인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발달심리학계에서는 특히 기초이론가들뿐만 아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연구하는 응용 학자들 역시 관심을 가지고 경험적 연구를 진행시켰다. 국내의 경우도 이러한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최근 정서 및 정서조절에 관련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예, 민경환·김지현·윤석빈·장승민, 2000; 이기학·이윤하·신주현, 2005; 장성숙·임전옥, 2003; 황혜정, 1999).

이러한 연구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정서 및 정서조절을 측정하는 도구들도 많이 타당화 및 개발이 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계의 추세에 맞춰 최근 미국에서 타당

화 된 아동에서 성인초기까지의 정서성 및 정서조절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설문지(the How I Feel: HIF, Walden, Harris & Catron, 2003)의 한국판을 제작하고 이를 타당화 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1. 정서의 정의

정서의 정의는 정서가 학계에 처음 대두되었을 때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주제이며, 현재까지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최근 학계의 추세는 정서를 주로 기능주의적(functionalism)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강하며, 본 연구도 이에 준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기능주의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정서란 “개인과 그 개인에 있어서 중요한 환경간의 관계를 유지, 그리고 변화하려는 시도”라 정의된다(Campos, Mumme, Kermoian & Campos, 1994).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정서는 환경에 대한 개인의 ‘적응기제’로 작용하며, 그러하기 때문에 개인의 전체적인 심리적 안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개인은 환경에 맞게 적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존재이며 그 노력이 연령이나 발달단계별로, 그리고 맥락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가 개인의 적응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러한 정서의 역할은 여러 가지 양식을 통해 관찰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발한이나 심박수와 같은 비수의적 근육 및 신경계의 반응에서부터, 기질 등의 개인차 변인(Thompson, 1994), 그리고 인지적 행동양식 및 태도의 수정 등, 개인으로 하여금 적응을 위한 변화를 요구하는 모든 상황은 사실상 정서반응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모든 학자들이 이 모든 맥락을 포괄하는 정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연구자들은 정서의 기능 중 주로 몇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심리학자들의 경우 특히 정서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개인으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이끄는 동기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정서는 그 발달 자체가 특정 외부 자극에 대한 행동양식의 습득이라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고전적 연구(Lazarus, 1991)에 의하면 공포란 아이가 그의 ‘행동’이 환경적 위협에 대해 작용하지 못할 때 발생하여 발달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듯 정서가 적응에 대한 특정 행동을 유발하는 주요 기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기능적으로 이 정서표현을 얼마나 맥락에 맞게 조절하여 행동하는가의 문제는 한 개인이 환경의 요구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냐를 직접적으로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의 공포의 예에서 공포감을 발달시키지 못한 아동의 경우 위험한 상황(예, 높은 곳)에서 적절한 행동양식을 발전시킬 수가 없게 되며, 그 결과 개인에 있어 치명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정서조절이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특히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기저에는 바로 이러한 정서의 정의와 그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2. 정서조절: 목적지향적 의식적 정서행동

정서가 환경에 대한 대처를 말한다면 정서 조절(emotion control)이란 무엇인가? 고전적으로

정서조절이란 특정 정서를 잘 ‘참는 것’이라고 정의되었다. 물론 정서조절에는 이러한 특정 정서(주로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정서조절은 긍정정서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Kopp, 1989). 학계에서 논란이 된 딜레마중의 하나는 정서란 것을 과연 조절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즉, 흔히 정서조절이 환경에 대해 자신을 잘 적응하기 위한 방략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정서란 것 자체가 환경에 대한 적응기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어반복적인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Cole, Martin, & Dennis, 2004).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보다 구체적인 정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예를 들어 Eisenberg(Eisenberg & Spinrad, 2004)는 기존의 정서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여 경험적 연구에 있어 실제적인 시사점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보다 구체적인 정의를 통해 정서조절을 해석하려고 하였다. 그녀에 의하면 정서조절 행동양식은 크게 세 가지 기준에서 구분될 수가 있다. 그것은 첫째, 조절행동이 개인의 외부에서 일어나는가 내부에서 일어나는가의 여부, 둘째, 조절행동이 목표행동(goal-directed behavior)을 추구하는 의도적인 행동인가 아닌가의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절행동이 개인의 자발적인 행동인가 아닌가의 여부이다. 그녀는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정서조절을 ‘감정과 관련된 생물학적 혹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정서관련 감정, 생리적 반응, 인지, 동기, 행동수준을 개입, 회피, 유지 혹은 조절하는 과정(Eisenberg & Spinrad, 2004, p.338)’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개인이 자신의 의지로 목표행동을 향

해 움직이려는 노력, 즉 ‘의식적인 정서변화 및 유지’를 강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 사회적 맥락에서 얼굴이 빨개지는 것은 분명히 정서 반응이며 정의에 따라서는 환경에 대한 정서조절이라고 정의될 수 있지만, 그녀의 정의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 자체는 개인의 의도적인 목적지향적 행동이 아닌 관계로 정서조절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포함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정서를 측정하는 대부분의 연구의 경우 정서조절은 대체로 이 의식적 정서조절이론과 관련이 있는데, 자기보고 설문지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식적인 수준의 조절에 중점을 두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정서조절을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식적인 정서관련 행동양식이라 정의하였다.

3. 정서조절과 아동, 청소년의 적응 및 발달

정서조절에 있어 개인의 의식적 노력이 강조된다면 비의도적이고 비자발적인 정서조절은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학자들은 정서의 이러한 부분을 정서의 흥분성(arousability; Eisenberg & Fabes, 1992), 정서성(emotionality; Kim, Walden, Harris, Karass, & Catron., 2007), 혹은 정서의 반응적 조절(reactive regulation; Eisenberg & Spinrad, 2004)등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는 쉽게 말해서 생물학적, 기질적인 각성을 뜻하는 것인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정서성도 넓은 의미의 정서조절(보통 이 경우 의식적 정서조절-control-과 구분하기 위해 ‘regul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

다)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정서조절의 경험적 연구에서는 이 정서성은 정서조절의 측면이 아닌 정서조절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즉, 이 각성된 정서성을 얼마나 맥락에 맞게 잘 조절하는가에 의해 개인의 적응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Thompson, 1994; Walden & Smith, 1997).

정서성과 정서조절이 아동과 청소년에 주는 영향은 많은 연구에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부정적 정서의 영향은 아동기 적응문제와 상당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 특히 분노감은 아동의 사회적 기능과 또래관계,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인 상관을 보여주고 있으며(Diener & Kim, 2004; Hanish et al., 2004), 이는 다양한 인종이나 사회경제적 계층을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다(Eisenberg, Pidada, & Liew, 2001). 분노감 이외에도 과도한 수준의 슬픔과 공포감은 역시 아동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며(Eisenberg, Cumberland et al., 2001; Lemery, Essex, & Smider, 2002), 또래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sher, Parkhurst, Hymel & Williams., 1990). 정서성과 함께 정서조절 역시 아동기 적응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정서조절의 개인차는 또래관계의 좋고 나쁨을 예측하는 예언변인으로 인정되고 있으며(Hanish et al., 2004; Kochanska & Knaack, 2003), 전반적인 적응의 지표로써도 많이 알려지고 있다(Eisenberg et al., 1996). 최근 이루어지는 일련의 종단연구 결과는 이 정서성과 정서조절 모두 개인 적응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Eisenberg et al., 2004).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의 경우 대체로 정서성과 정서조절을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다. 첫째, 정서성과 정서조절이 생리적, 행동적, 그리고 인지적인 반응을 모두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임을 감안한다면 이를 측정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다양한 정서관련 반응을 함께 측정하여 이를 묶어서 해석하는 방식일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고급 통계 방법론의 발달로 인해 이러한 다양한 측정방식을 통계적으로 통합하기가 용이해 졌으며 이에 따라 여러 맥락에서 정서를 측정한 후 이를 하나의 변인으로 조합하는 방식이 각광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Spinrad등(2006)의 최근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조절 측정을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질문지법인 ECBQ(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Putnam, Gartstein, & Rothbart, 2006)를 사용하는 동시에 행동적으로 만족지연을 측정하는 ‘snack-delay task(Kochanska, Murray, & Harlan, 2000)’를 같이 사용하여 정서조절을 측정하였다. 또한 Kochanska, Aksan, Penney와 Doobay(2007)도 아동의 정서조절 측정을 위해 질문지법에 더해 만족지연, 그림그리기, 스트룹검사 등을 병용하여 사용하는 등, 최근에는 다양한 관점에서 2개 이상의 관련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합하는 방식이 점점 더 선호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러한 경향성은 정서성과 정서조절을 단지 하나의 맥락만이 아닌 다른 보고자나 다른 시점에서 측정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며, 궁극적으로 정서관련 연구가 지향해야 할 원칙적인 방법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복합적(multimodal)검사배터리는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지 않는 것이 또한 사실인데, 이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 즉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국내연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직은 많이 도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첫 번째 방식에 비해서는 최선의 방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간편하고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고전적으로도, 그리고 현재로써도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질문지를 이용한 방법이다. 이중 아동의 경우 특히 부모와 교사에 의한 질문지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예, Keane & Calkins, 2004; Putnam, Gartstein, & Rothbart, 2006; Shields & Cicchetti, 1996), 학령기 이후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법과 함께 인터뷰 방식도 사용되고 있다(예, Rossman, 1992; Stocker, Richmond, Rhoades & Kiang, 2007). 마지막으로 주로 임상적 장면에서 사용되는 과정으로써 이미 특정 장애를 가지고 의뢰된 소수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병리적 측면에서 측정을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보통 특정 긍정 혹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식으로 실험적으로 정서를 유발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예, Tull & Roemer, 2007), 이 경우는 대체로 본 연구와 같이 300여명 이상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맥락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겠다.

4. 정서측정을 위한 자기보고식 척도와 HIF

정서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정서측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질문지법을 통한 고전적인 측정은 아직도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며 특히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말해도 좋을 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질문지법이 많이 사용된다는 점 자체가 질문지를 통한 정서의 측정이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질문지법을 이용한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 논문들의 경우 아직도 부모나 교사용 질문지를 통해 아동의 정서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추세는 아동의 경우 정확히 자신의 느낌을 보고할 수 없다는 믿음(Saarni, Mumme & Campos, 1998)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아동의 정서에 대해서 묻는 질문지는 결국 아동의 외현적인 행동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아동 자신이 지각하는 정서 수준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다는 약점이 지적되고 있다(Ollendick & Hersen, 1993). 또한 개인의 내부 경험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외부의 관찰보다 아동의 자기보고에 근거한 것이 더 유용하다는 결과도 있어(Loeber, Green & Lahey, 1990), 아동의 지각된 정서표현도 정서측정에 있어 중요한 측면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두 번째, 대부분의 기존연구에 있어서는 아동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에 따라 다른 척도와 기준을 가지고 정서조절과 정서성을 측정하고 있다.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아동에게 적용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성인과 아동의 정서조절의 맥락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특정 정서이론에 근거한 연구가 많지 않은 시점에서 성인기와 아동기에 서로 다른 척도를 가지고 측정할 경우 자칫 서로 다른 정의에서 비롯된 다른 측면의 정서를 측정할 위험성이 따른다. 따라서 한가지의 정서이론에 근거하여 연령별로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하던지, 아니면 다양한 연령대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단일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정서성과 정서조절의 두 가지 측면이 모두 개인의 적응에 깊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동일 연구에서 정서성과 정서조절을 모두 측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두 가지 정서구인들을 하나의 척도로 일관되게 측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정서성과 정서조절을 다른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는데 이는 이론적 배경의 불일치의 가능성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측정 문항수의 증가를 뜻한다. 예를 들어 국내 상당수 연구들의 경우 아동기 정서성을 정적정서 및 부적정서 척도(PANAS; Watson et al., 1988)나 정서 강도 및 빈도 조사 척도(ITAS; Diener, Smith & Fujita, 1995)로 측정하며, 정서조절은 정서조절 질문지(ERQ; Gross, 1998)를 이용하여 측정하곤 한다. 그런데 PANAS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서성의 요인이 긍정성과 부정성의 두 가지 대요인으로 묶인다는 것을 가정하여 개발된 척도이며, Gross (Gross & John, 1998)에 의해 개발된 척도들은 여기에 '정서표현의 세기'를 중요한 요인으로 추가하여 발전한 이론에 근거한다. Diener

(Diener, Larsen, Levine, & Emmons, 1985)는 한층 더 기존의 긍정정서, 부정정서의 축에 정서표현의 강도와 빈도의 두 하위요인을 더하는 것이 개인의 정서반응을 더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 조절을 같은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 비록 이러한 차이는 매우 미세할 수 있으나 이론적 배경이 다른 척도들을 이용하여 정서성과 정서조절을 따로 따로 측정할 경우 그들 간의 관계가 실제보다 더 독립적이라고 판단될 소지도 있으며 반대로 실제보다 더 연관이 있다고 측정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정서조절에 상위인지적 기술과 관련된 의식적 행동에 더해 무의식적인 억제방식까지 포함하는 척도(예, ERQ)를 무의식적 억제방식이 정서조절이 아닌 정서성으로 간주되는 척도(예, PANAS)와 함께 사용할 경우 정서성이 이중으로 측정되어 상관관계가 부풀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PANAS의 경우는 최근 1개월의 시점을 보고하도록 하는데 반해 ERQ등에서는 그러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정서경험 측정의 범위도 다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은 모두 각 척도의 이론적 배경을 숙지하고 맥락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러한 수고가 필요하지 않도록 정서성과 정서조절을 하나의 이론적 근거에 기초한 척도로 측정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방식이 될 것임은 부정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한글화 하고자 하는 척도인 ‘자기지각 정서척도(How I Feel: HIF)’는 이러한 정서측정에 대한 논의들을 감안하여 개발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이 척도는 3개월간

의 자신의 정서와 그 조절을 묻는 5점 척도의 질문지으로써 다섯 가지의 구체적인 정서범주(기쁨, 흥분, 분노, 공포, 슬픔)로 구성된 세 가지의 요인들(긍정정서, 부정정서, 정서조절, 이 중 정서조절은 다시 긍정정서 조절과 부정정서 조절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됨)을 두 가지 차원(정서의 강도와 빈도)에서 얼마만큼 지각하는지를 측정한다. 측정의 대상은 아동부터 성인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특정 맥락(예, 학교, 직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정서가 발생하는 상황을 광범위하게 생각하게 한 후에 그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묻는 양식을 취한다. 미국의 경우 후기 아동기를 대상으로 타당화가 종료되었으며(Walden, Harris, Catron, 2003), 현재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2차 타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기존의 정서설문지 연구들의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6개월 재검사 신뢰도의 경우 .3에서 .6정도의 수준; Walden et al., 2003), 기초조사 결과 청소년의 경우도 아동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보이고 있다(Harris, personal communication). 또한 이 척도를 이용한 아동기 적응문제와의 관련연구도 최근 발표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동기의 부적정서성과 외현적 문제와의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가 있으며(Kim et al., 2007), 내현적 문제인 우울과 신체화 장애와의 관련성도 보고되고 있다(Harris et al., 2006; Walden et al., submitted).

HIF의 개발은 이론적으로 정서성의 2요인 모형(Watson & Tellegen, 1985) 및 Diener 등이

제안한 긍정정서, 부정정서 두 축의 하위요인으로써 빈도와 강도를 더한 이론에 강하게 기초하여 구성되었다. 정서성의 2요인 모형은 Bradburn(1969)의 고전적 연구를 필두로 제안된 개념으로써, 정서성을 긍정성의 축과 부정성의 축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즉, 부정정서를 많이 느끼는 것이 긍정정서를 조금 느끼는 것이 아닌, 두 가지는 독립된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Zevon과 Tellegen(1982), Watson과 Tellegen(1985) 등의 기존 연구들은 요인 분석 시 이러한 구분이 정서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대체로의 정서이론들은 이 2요인론에 근거하여 정서성을 판단한다. 하지만 몇몇 연구자들은 여기에 추가적인 요인 축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비록 많은 사람들의 자료를 요인분석이라는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할 경우 긍정성과 부정성이 독립적으로 추출되지만, 실제 개인내의 경험을 근거로 볼 때는 ‘우울할수록 기쁘지 않은’ 경우처럼 단일축으로 정서경험을 설명하는 것이 더 설명력이 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Diener(Diener et al., 1985) 등은 이러한 정서표현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두 가지 축에 더하여 정서성의 강도와 빈도의 두 가지 독립차원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럴 경우 요인분석 시 나타나는 긍정정서 및 부정정서의 독립축과 개인 내에서 지각되는 단일요인으로써의 정서경험을 통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Diener등의 경험적 연구(Diener, Larsen, Levine, & Emmons, 1985)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긍정

정서와 부정정서는 일반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이지만 여기에서 정서경험의 강도의 효과를 제거하면 높은 부적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긍정 정서와 부정긍정 자체는 독립된 차원이지만 개인의 정서경험이란 강도와 빈도가 혼합된 복합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마치 단일 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높은 상관이 나온다는 것이다. 정서경험을 측정함에 있어서 각각의 긍정 및 부정 정서성에 더불어 강도와 빈도를 모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제안인데, 본 연구의 척도 역시 이러한 제안에 근거하여 정서성과 정서조절의 수준을 강도와 빈도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서경험을 규정한다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정서조절의 조작적 정의도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HIF에서 규정한 정서조절이란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라는 두 정서성의 ‘형식’을 빈도와 강도라는 정서성의 ‘정도’에 있어 얼마나 잘 유지하거나 변화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방식을 취한다. Russell과 Feldman Barrett(1999)는 정서 상태를 하나의 구조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위 ‘기본정서론’에 입각한 분리정서(discrete emotion)의 상정과 함께 각 정서경험의 각성수준과 긍정-부정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정서경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Felman Barrett, 1998). 따라서 본 척도도 이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설정된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의 형식을 아동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가장 대표적인 정서표출이라 보고되고 있는 다섯 가지의 기본정서(Ekman, 1992)에 국한하였고, 각 기본정서의 조절을 묻는 질문을 정

서성당 최소 두 문항씩(강도와 빈도)제시하는 형식을 취한다. 따라서 HIF가 측정한다고 가정하는 심리적 비판측 구인은 긍정정서, 부정정서, 정서조절에 빈도와 강도를 포함한 총 5개의 구인으로 설정된다(그림 1 참조).

본 척도에서 정서성의 빈도와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를 직접 두 가지 표현(원어의 경우 ‘how often’과 ‘how strong’을 이용함)으로 물어보는 방식을 취한다. 정서의 빈도와 강도를 측정하는 방식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는 방식, 혹은 가상 시나리오나 맥락을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아직까지도 정서강도의 측정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인 정서강도척도(AIM: Affect Intensity Measure, Larsen & Diener, 1987)의 경우 ‘내가 기쁠 때 그것은 매우 강한 흥분감이었다’라는 식으로 직접 강도를 묻는 방식을 취한다. 비슷하게, 정서 강도 및 빈도 조사척도(ITAS; Diener, Smith & Fujita, 1995) 역시 24가지 정서성에 대하여 ‘당신이 ○○한 정서를 느낄 때 그것을 보통 얼마나 강하게 느꼈습니까?’라는 식의 직접질문을 하는 방식을 취한다. 반면 특정 정서경험을 개인의 직접보고에 의존하지 않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측정하는 형태도 존재하는데(예, 시나리오 평정기법: SRT), Schimmack와 Diener (1997)에 의하면 대체로 이러한 방식이 정서강도를 측정하는데 더 유리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의 경우 척도가 개발되었을 때 사용된 특정 연령대와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매우 세밀하게 정서강도와 빈도를 조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설적 상황을 상상하고 그에 수반한 정서경험을 묻는 방식이기 때

문에 연령대나 문화차, 맥락이 달라질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약점이 존재한다. HIF의 경우 광범위한 집단에게 적용 가능한 척도를 개발하려는 목적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간접적 방식보다는 직접적으로 정서경험을 묻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서 제작된 본 척도는 기존의 척도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척도 하나로 정서성과 정서조절의 두 측면을 모두 하나의 이론적 맥락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이론적인 일관성이라는 점에 더하여 문항수의 감소를 통한 측정시간을 단축이라는 실용적인 이점도 더해진다. 둘째, 아동기와 성인기를 아우르는 척도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종단연구 등의 맥락에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척도를 타당화 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 한국 아동에게 적절히 적용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장점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는 않다. 세 번째로 기존의 많은 척도들이 임상장면을 맥락으로 표준화된 반면 이 척도는 정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일반 발달과정을 더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연령과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게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다른 문화권에서의 해석과 적용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는 이 척도의 한글화를 꾀하고 타당화를 통해 가칭 한국형 자기지각 정서경험 척도(K-HIF)를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본 연구는 문항해석과

타당화를 고전적인 척도타당화 수순에 따라 진행시키고 이를 후기 청소년기-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대학교 1, 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경우 언어 발달적으로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를 가장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척도타당화의 첫 번째 대상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1. 원척도의 문항해석 및 역번역

연구 1은 영어로 구성되어진 원척도를 한글로 해석한 후 이를 심화시키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1. 방법

참가자

총 30문항으로 된 원 척도를 번역하고 역번역하기 위해서 저자를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 이중언어자(혹은 영어권 국가에서 충분히 오래 거주하여 영어 번역에 있어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 자)를 모집하였다. 이중 3명의 자원봉사자는 영어척도의 한글번역을, 그리고 4명의 이중언어자는 한글번역이 된 척도에 대한 영어 역번역 작업에 배치되었다. 자원봉사자는 모두 한국에서 심리학과 대학원을 이수하였거나 현재 이수중인 자들로써 한번 이상의 외국 유학, 혹은 어학연수 경험이 있는 자들로 구성되었다. 이중언어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8.1년(범위 6년-15년)의 외국거주 기간을 보여준 자들로써 영어권 국가에서 하나 이상의

정규교육을 받은 자들로 구성되었다.

절차

영어로 된 척도는 일단 3명의 자원봉사자에게 번역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저자들과 한 명의 이중언어자가 함께 취합하여 하나의 척도로 만든 후, 이를 4명의 이중언어자가 역번역을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처음의 영어번역에서 서로 맞지 않는 점이 나온 경우 저자가 이중언어자와 논의하여 가장 적절한 해석을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문항을 모두 포함하여 이중언어자들에게 역번역을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역번역을 취한 한글척도의 경우 원래 30문항의 척도보다 더 많은 수의 문항(41 문항)을 포함하였다.

2. 결과 및 논의

영어의 번역 자체는 3명 모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척도 자체가 아동을 포함하도록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쉬운 단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척도번역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첫째, 원 척도에 있어 “When I felt scared”로 시작되는 문항이 ‘걱정이 될 때’ ‘무서울 때’ ‘두려울 때’로 해석이 되었다. 역번역 결과 ‘걱정이 될 때’라는 의미는 afraid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탈락시키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무서울 때’와 ‘두려울 때’는 모두 scared, fearful, 혹은 afraid로 해석되는 등 역번역에 있어서도 일치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이중언어자와 심층적으로 토론해 본 결과 scared의 해석은 대상이 확실히 존재하는 ‘무서울 때’ 보다는 ‘두려울 때’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렸으며, 최종적으로 설문지에서는 ‘두려울 때’라는 용어로 정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두 번째, 원문의 “I was in control of how often I felt scared(혹은 sad, mad)”라는 문장의 번역 및 역 번역에 있어서 일치가 되지 않았다. 이 문항의 경우 두려웠던가 화가 나거나 슬픈 경험의 빈도를 얼마나 잘 조절하는지를 측정하는 문항인데, 한글로 ‘자주’라는 말로 직역할 경우 ‘잘(well)’이란 말로 상호적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문제는 후자의 경우 정서조절의 빈도라기보다는 성공도에 해당되는 말로써 이를 구별해 줄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대안적으로 본문의 단어를 그대로 번역한 ‘두려움을 자주 조절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와 함께 보다 구체적으로 의역한 문장인 ‘두려웠던 횟수를 조절할 수 있었다’라는 두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다. 역번역 결과 이중언어자들은 후자의 경우를 더 영어문장과 비슷하게 번역을 하였다. 하지만 이 문항의 경우 한글맥락에서 그다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의견도 같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해석을 모두 포함한 문항을 모두 척도에 삽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원 척도에서 사용된 정서 반응이 총 5가지의 정서성(기쁨, 흥분, 슬픔, 분노, 공포)이었기 때문에, 각 범주당 추가로 문항을 삽입하여 총 35문항의 척도로 한글판을 구성하였다.

III. 연구 2. 가척도의 요인구조 검색

연구 2는 연구 1에서 잠정 결정된 한글판 척도를 이용하여 후기 청소년기-초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이를 타당화 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1. 방법

대상자

강원도 소재 대학교 1, 2학년의 심리학 수업을 듣는 학생이 참가하였다. 총 응답자 313명 중 233명이 여성이었으며, 중앙치 연령은 만 19.5세였다.

도구 및 절차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35문항의 가칭 한국판 정서경험 지각척도를 개발, 이를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소요시간은 평균 20분 내외였다.

2. 결과 및 논의

척도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첫째, 기존 연구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였을 때 기존 연구의 결과와 같은 양상이 발견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이를 기초로 기존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을 적용하여 그 적합도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기존 연구(Walden et al., 2003)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한 최초요인 추출법, 최초 공유 추정법, 그리고 회전법으로 각각 주성분 분석

표 1. 가치도의 문항 간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부정정서	요인 2. 긍정정서	요인 3. 정서조절
문항 1. 매우 자주 행복	-.254	.681	-.074
문항 2. 강렬한 슬픔	.534	-.178	-.027
문항 3. 분노 빈도조절(유형 2)	-.324	-.127	.534
문항 4. 항상 흥분 ^a	.545	.235	-.077
문항 5. 분노 빈도조절(유형 1)*	-.207	-.266	.434
문항 6. 위력적인 두려움	.693	.047	-.013
문항 7. 행복 강도 조절	.072	.210	.323
문항 8. 매우 자주 슬픔	.666	-.359	.007
문항 9. 강렬한 분노	.679	.034	-.090
문항 10. 흥분감 빈도조절(유형 1)*	-.158	-.105	.649
문항 11. 흥분감 빈도조절(유형 2)	-.101	-.097	.719
문항 12. 항상 두려움	.613	-.102	-.035
문항 13. 위력적인 행복감	.234	.747	-.013
문항 14. 슬픔 강도 조절	.050	.244	.499
문항 15. 두려움 빈도조절(유형 1)*	.049	.137	.624
문항 16. 매우 자주 분노	.666	-.095	.007
문항 17. 강렬한 흥분감 ^a	.691	.288	.024
문항 18. 두려움 빈도조절(유형 2)	.062	.066	.723
문항 19. 항상 행복	-.207	.646	.033
문항 20. 슬픔 빈도조절(유형 1)*	-.061	-.003	.645
문항 21. 위력적인 슬픔	.703	-.078	.045
문항 22. 분노 강도 조절	-.075	-.028	.772
문항 23. 매우 자주 흥분 ^a	.634	.091	.029
문항 24. 강렬한 두려움	.769	.109	-.035
문항 25. 행복감 빈도조절(유형 1)* ^a	-.083	.497	.348
문항 26. 행복감 빈도조절(유형 2)	.024	.283	.533
문항 27. 항상 슬픔	.629	-.456	.109
문항 28. 위력적인 분노	.825	.133	.047
문항 29. 흥분감 강도 조절	.144	-.040	.754
문항 30. 매우 자주 두려움	.716	-.171	.023
문항 31. 강렬한 행복감	.198	.757	.051
문항 32. 슬픔 빈도조절(유형 2)	.148	.023	.709
문항 33. 항상 분노	.669	-.201	.061
문항 34. 위력적인 흥분감 ^a	.777	.298	-.011
문항 35. 두려움 강도 조절	.133	.031	.762

Note: * 후속 분석에서 제외한 문항들, a 기존 연구와 다른 요인으로 결정된 문항

(principle component)법, R^2 , 그리고 프로맥스 사각회전법(promax oblique rotation)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척도 타당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요인분석법이 아니지만, 본 연구도 일단 원 척도 타당화 방식으로 자료를 적용하였을 때 기존 연구의 결과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같은 방식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기로 하였다(표 1). 참고로 일반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에 더 많이 사용되는 주축분석(principle axis method)이나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방식, 그리고 직각회전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을 경우에도 요인구조는 유사하게 추출되었으나 여기에서는 밝히지 않는다.

표 1의 결과는 몇 가지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해석 및 역번역의 불일치로 인해 첨가한 5개의 추가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의 빈도에 대해 각각 두 가지의 유형으로 질문을 하였다. 유형 1은 “나는 자주 ○○를 조절할 수 있었다”는 직역체에 가까운 해석이었으며, 유형 2는 “나는 지난 3개월간 ○○하는 횟수를 조절할 수 있었다”라는 식의 구체적인 의역식의 질문이었다. 각각의 질문 문항들은 상호적으로 .4에서 .6정도의 상관을 보여서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의 상관을 보였다. 이중 표 1에서 *표로 제시된 항목이 유형 1의 문항들(“나는 자주 ○○를 조절할 수 있었다”)이다. 이 문항들의 요인부하량을 보면 모든 문항들에 있어 유형 2 (“나는 지난 3개월간 ○○하는 횟수를 조절할 수 있었다”) 문항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유형

2의 문항이 유형 1의 문항보다 다른 문항들 간의 관련성이 더 높다는 것을 말해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본 연구의 결과도 기존연구와 마찬가지로 3가지의 요인구조와 함께 각각 긍정정서, 부정정서, 그리고 정서조절의 세 가지 축으로 요인이 선정되었다. 다만 한 가지 범주의 정서반응은 기존연구와 완전히 다른 요인구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흥분감(excitement)의 정서성을 반영하는 문장으로써 문항 4,17,23, 그리고 34번 문항이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흥분감은 행복감과 더불어 긍정정서에 해당되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이 흥분감이 오히려 부정적 정서에 속하는 개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문화에 따른 차이보다는 근본적인 해석도 가능하며 또 단순히 문항 해석에 있어서의 오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말의 ‘흥분’이라는 개념은 영어의 ‘excitement’의 개념과 더불어 ‘agitation’의 개념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되어 졌다.

이렇듯 흥분감이 본 연구에 있어서 부정적 정서성으로 범주화 되는 관계로 본 가척도를 다시 수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 등 추후의 타당화 작업을 모두 중지하고 다시 척도를 재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분석에 따르면 “나는 지난 3개월간 ○○하는 횟수를 조절할 수 있었다”라는 의역체 문항이 더 문항 간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 문항들만 제시하고 “나는 자주 ○○를 조절할 수 있었다”라는 문항은 배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흥분’이란 말

을 보다 긍정적인 동의어로 대체하기로 하고 공저자 및 이중언어자들과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 ‘흥분’ 보다는 ‘짜릿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긍정성을 최대한으로 표현하면서 해석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합의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척도구성은 원문항과 같은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흥분’을 ‘짜릿함’으로 대체하였다.

IV 연구 3. 최종척도 개발 및 타당도 검증

연구 3은 연구 2에서 밝혀진 오류를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한글판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후기 청소년기-초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타당화 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1. 방법

대상자

강원도 및 서울소재의 대학교 1, 2학년 학생 327명이 참가하였다. 210명이 여성이었으며, 중앙치 연령은 만 19.5세였다. 이 중 초기 성인기에 해당되지 않은 3명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1명의 답변을 제외한 총 323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도구 및 절차

한국판 자기지각 정서경험 척도(K-HIF).

연구 2를 바탕으로 수정된 30문항의 한국판 정서경험 지각척도를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이 척도는 3개월간의 자신의 정서 관련 경험을 묻는 5점 Likert척도(1: 전혀 아니

다, 5: 매우 그렇다)이다.

원판 정서경험 지각척도(Walden et al., 2003)는 크게 긍정정서, 부정정서, 그리고 정서조절의 3가지 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조절은 다시 긍정정서와 부정정서에 대한 조절의 소요인으로 나뉘어져 총 4가지 이론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각각의 요인들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alpha 계수는 긍정정서 .87, 부정정서 .90, 긍정정서조절 .77, 부정정서조절 .83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또한 공존타당도 검증을 위해 참여자들은 본 연구의 설문지와 더불어 네 가지의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이중 2개는 정서성을 측정하는 설문지이며 2개는 정서조절을 측정하는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 척도

(PANAS). PANAS는 정적정서와 부정적정서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Watson 등(1988)이 개발한 척도로서 2003년 이민규(이민규 · 김은정 · 이현희, 2003)등에 의해 국내에서 타당화가 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의 정서에 대해서 묻는 형용사를 제시하며(예, 두려운, 겁에 질린), 지난 1주일간 이 감정을 얼마 정도 느꼈는지를 5점 Likert척도에 평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PANAS의 국내판 내적 합치도는 .84로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고하고 있다.

정서 강도 및 빈도 조사척도(Intensity and

Time Affect Survey: ITAS). ITAS는 경험적인 방식을 통해 개인의 주관적인 안녕감과 관련된 정적 정서와 부정 정서를 산출한 후(Diener, Smith & Fujita, 1995), 각각의 정서범주를 느끼

는 강도 및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이다(Diener, Fujita, & Seidlitz, 1991). 이 척도는 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8개 단어(예, 기쁨)와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16개 단어(예, 두려움) 등 총 24개의 단어에 대해 지난 한달 동안 얼마만큼 느꼈는지를 7점 척도상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판은 이은경(2004)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한글판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정적정서 .90, 부정정서는 .89로 보고되고 있다.

정서조절 질문지(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ERQ). ERQ는 Gross(1998)의 정서조절 이론에 근거하여 제작된 10문항의 설문지이다. 이 설문지는 개인이 정서조절을 하는 맥락에 놓여있을 때 의식적 재해석 방식(예, 좋은 감정을 더 많이 느끼고 싶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꾼다), 혹은 억제방략의 조절양식(예, 내 감정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고 나 혼자만 가지고 있다)을 얼마만큼 사용하는지를 7점 Likert 척도 상에 묻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손재민(2005)에 의해 해석 및 타당화 되었다. 국내판 ERQ의 신뢰도 계수는 재해석 문항의 경우 .85, 억제문항의 경우 .73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중 목적지향적인 의식적 조절이라는 본 연구의 정서조절의 정의에 부합하는 정서조절 양식은 ‘재해석’ 양식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이 요인과의 상관관계에 주목하였다.

정서조절 체크리스트. 정서조절 체크리스트는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양식을 구분하기 위해 민경환 등(민경환·김지현·윤석빈·

장승민, 2000)에 의해 개발 및 타당화 된 도구이다. 원 척도는 총 12문항의 부정적 정서경험을 제시하고 이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4점 척도상에서 묻는 양식을 취한다(예, 가족이나 친구와 만난다). 척도의 구조는 총 3개 유형의 조절양식인 능동적 조절양식, 지지적 조절양식, 그리고 회피적 조절양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본 설문지가 기초하고 있는 정서조절과 가장 유사한 개념이 능동적 조절양식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능동적 조절양식(예, ‘상황을 개선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을 측정하는 4개의 문항을 추출해 이를 이용해 공존 타당도를 측정하였다. 능동적 양식 하위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3으로 보고되고 있다.

2. 결과 및 논의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 2과 마찬가지로 척도의 요인구조 확인을 위해 같은 방식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의하면 연구 2에서 부정적 정서 요인으로 묶였던 ‘홍분’ 문항들이 ‘짜릿함’으로 바뀌어 실시한 결과 모두 긍정적 정서요인으로 묶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3에서의 요인구조는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났던 요인구조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 척도를 최종 척도로 지정하고 이후의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원 정서경험 지각척도의 확인적 요인모형을 이용하여 한국어판 척도의 요인구조가 원 모형과 같은 유형인지를 조사하였다. 원 연구의 경우 총 30문항의 문항을 평균을 이용하여

표 2. 최종척도의 문항간 요인분석 결과

문항	M(SD)	요인 1 부정정서	요인 2 긍정정서	요인 3 정서조절
문항 1. 매우 자주 행복	3.34(1.00)	-.453	.602	-.069
문항 2. 강렬한 슬픔	3.23(1.11)	.661	.171	-.093
문항 3. 분노 빈도 조절	3.30(.92)	-.313	.076	.337
문항 4. 항상 짜릿함 ^a	2.24(.94)	-.015	.632	.102
문항 5. 위력적인 두려움	2.70(1.11)	.634	.097	-.081
문항 6. 행복 강도 조절	2.90(.94)	-.001	-.043	.612
문항 7. 매우 자주 슬픔	2.55(1.12)	.733	-.157	-.013
문항 8. 강렬한 분노	2.87(1.18)	.683	.154	-.016
문항 9. 짜릿함 빈도 조절	2.43(.88)	.076	-.036	.747
문항 10. 항상 두려움	1.84(.99)	.710	-.133	.024
문항 11. 위력적인 행복감	3.22(.97)	-.036	.790	-.125
문항 12. 슬픔 강도 조절	2.84(.90)	-.118	.071	.604
문항 13. 매우 자주 분노	2.19(1.02)	.636	-.061	.014
문항 14. 강렬한 짜릿함 ^a	2.62(1.00)	.258	.785	.035
문항 15. 두려움 빈도 조절	2.67(.92)	-.096	.039	.715
문항 16. 항상 행복	3.03(.99)	-.426	.579	.023
문항 17. 위력적인 슬픔	3.03(1.14)	.728	.224	-.062
문항 18. 분노 강도 조절	2.90(.91)	-.096	.039	.584
문항 19. 매우 자주 짜릿함 ^a	2.11(.88)	.128	.569	.284
문항 20. 강렬한 두려움	2.49(1.07)	.701	.173	-.050
문항 21. 행복감 빈도 조절	2.66(.82)	-.050	.065	.623
문항 22. 항상 슬픔	2.07(1.01)	.717	-.231	.060
문항 23. 위력적인 분노	2.75(1.08)	.734	.237	.007
문항 24. 짜릿함 강도 조절	2.52(.81)	.150	.136	.640
문항 25. 매우 자주 두려움	2.07(1.02)	.711	-.103	-.021
문항 26. 강렬한 행복감	3.26(.92)	-.040	.816	-.089
문항 27. 슬픔 빈도 조절	2.50(.89)	-.001	-.071	.803
문항 28. 항상 분노	1.72(.83)	.664	-.070	.148
문항 29. 위력적인 짜릿함 ^a	2.51(.95)	.346	.751	.067
문항 30. 두려움 강도 조절	2.61(.91)	.030	.009	.791

Note: a 연구 2에서 다른 요인으로 묶였던 ‘짜릿함’ 관련 문항들

Kishton과 Widaman(1994)의 제안에 근거한 총 14개의 문항단위(item parcel)로 재구성하였으며, 이를 세 가지 비관측 변인인 ‘긍정정서’ ‘부정정서’ 그리고 ‘정서조절’에 할당하고 방법변인(method factor)으로써 ‘빈도’와 ‘강도’의 두 가지 비관측 변인을 통해 공변량을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 이후의 연구도 이 방식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Harris et al., 2003; Kim et al., 2007). 원 논문에 따르면 정서의 같은 부분을 중다항목을 이용하여 측정할 경우 이와 같은 문항단위에 근거한 재구성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실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논리를 따르는 것이 모든 문항을 독립적으로 측정변인에 삽입할 경우보다 구조방정식의 적합도가 더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원 타당화 연구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하였을 때 기존의 결과를 유사하게 반영하는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도 원칙도 타당화 작업에 근거하여 같은 모형을 만들어 구조방정식을 산출한 결과(그림 1), 이 모형은 만족할만한 적합도를 보였다($\chi^2_{(53)} = 124.99$, $NFI = .95$, $CFI = .97$, $RMSEA = .060$). 즉,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형은 기존 연구의 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성차에 따른 독립모형 구성 가능성 검증

남성과 여성의 경우 정서표출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이 점에서 정서성과 정서조절간의 관계가 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그림 1에서 가정한 모형이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일단 각 측정변인간의 성차를 t 검증을 이용해 측정한 결과 몇몇 변인간의 정서성에서 성차가 발견되었다. 남성의 경우 짜릿함 강도(2.81)와 빈도(2.37)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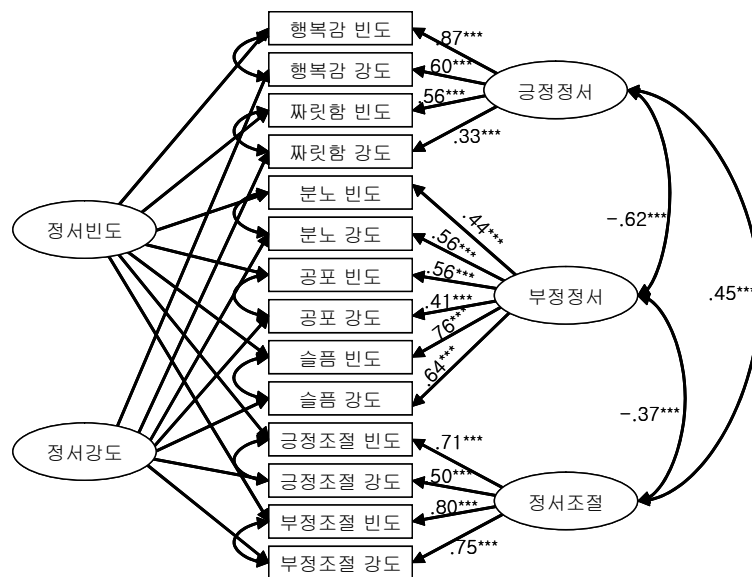


그림 1. 최종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서 여성(강도: 2.43, 빈도: 2.07)보다 높은 수준($p < .001$)의 정서성을 보고하였으며, 반면 부정 정서의 경우 여성의 슬픔강도(3.24) 및 빈도(2.44), 그리고 두려움 강도(2.73) 및 빈도(2.07)에서 남성(슬픔강도: 2.92, 슬픔빈도: 2.09, 두려움강도: 2.35, 두려움빈도: 1.74)보다 높은 수준($p < .001$)을 보고하였다. 기타 정서성 및 모든 정서조절의 빈도와 강도에 있어서는 성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짜릿함, 슬픔, 그리고 두려움에 있어 성차가 보고되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보고된 바가 있다(예, Allen & Haccoun, 1976; Nolen-Hoeksema, 1987; Rotter & Rotter, 1988; Scherer, Walbotlin, & Summerfield, 1986; Zuckerman, Lipets, Hall Koivumaki, & Rosenthal, 1975). 본 연구의 결과는 특히 미국 내 광범위한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최근 연구에서 짜릿함, 슬픔, 두려움에서는 성차가 발견된 반면 평온함과 분노반응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Simon & Nath, 2004)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 있어 더 중요한 주제는 정서성의 성차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차가 모형의 요인구조에 영향을 주어 성에 따른 다른 모형설계를 요구하느냐의 여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구조모형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집단 검사(multi-group test)를 실시하였다. 구조변인간의 경로계수 및 측정변인과 구조변인 사이의 요인부하량이 남성과 여성에게 있어서 같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설정된 모형을 기존의 자유추정 모형과 비교해 본 결과, 계수 간 차이를 같도록 설정한 모형

과 기존 모형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chi^2_{(31)} = 28.77, p = .58$). 이는 다시 말하면 흥분도나 슬픔, 공포 등 일부 정서성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간의 평균적인 차이가 발견되고 있으나 이러한 차이가 정서성 및 정서조절간의 구조적 관계의 강도 및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척도구성 및 분석을 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제시는 남성과 여성의 자료를 통합한 자료만 제시하기로 하였다.

구성타당도 및 변별타당도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전적 심리측정 방식과 구조방정식 방식의 두 가지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첫째, 심리측정 방식을 통해 세 가지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였다. 먼저 본 척도의 긍정정서의 경우는 공존척도의 긍정정서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그리고 부정정서와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정서조절 척도와는 유의미하지 않던지 낮은 수준의 상관을 예측하였다. 둘째, 본 척도의 부정정서의 경우는 긍정정서와는 반대되는 관련성, 즉, 공존척도의 부정정서와는 높은 정적 상관, 긍정정서와는 부적 상관을 예상하였다. 역시 정서조절 척도와는 낮은 상관을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척도의 정서조절 척도는 공존척도의 긍정 및 부정정서와는 낮은 상관을 예측하였으며 반면 정서조절 척도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예측하였다.

표 3은 본 척도의 하위척도들과 공존척도와 의 상관이다. 예상과 같이 본 척도의 긍정정

표 3. K-HIF의 기준타당도 검사 결과

	K-HIF		
	긍정정서	부정정서	정서조절
ITAS-긍정	.56***	-.40***	.27***
ITAS-부정	-.20***	.69***	-.23**
PANAS-긍정	.54***	-.34***	.11
PANAS-부정	-.19***	.60***	-.31***
ERQ 재해석	.23***	-.14*	.33***
능동적 정서조절	.03	-.03	.18**

Note: * $p < .05$, ** $p < .01$, *** $p < .001$

서는 공존척도의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는 공존척도의 부정정서와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정서조절 척도와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였다. 정서조절의 경우 정서성 만큼 확연히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나 예상했던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이 중 본 척도의 정서조절 문항과 ERQ재해석 요인의 정서 조절간의 상관(.33)은 본 척도의 긍정정서와 ERQ재해석 요인간의 상관(.23)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나머지 경우는 모두 예상대로 본 척도의 정서조절 요인과 공존척도의 정서조절 요인들 간의 상관은 공존척도의 정서성 요인들 간의 상관보다 유의미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2개 이상의 설문지를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본 척도의 실용성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구성타당도가 만족할만한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변별타당도 검사를 위해 기존의 그림 1의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Dunn, Seaker와 Waller(1994)가 제안한 방식에 의해 타

당도 검증을 하였다. 이 제안에 의하면 모형의 변별타당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1개의 일반요인으로 구성된 단일요인 모형에 비해 유의미한 χ^2 차이를 보여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그림 1에서 제안된 세 가지 비관측 변수를 제거하고 대신 한 가지 단일변인을 상정한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 모형의 χ^2 값은 $\chi^2_{(56)}=248.07$ 로써 본 연구의 제안모델간의 차이는 $\chi^2_{(3)}=123.08$, $p < .001$ 이었다. χ^2 차이가 유의미했으므로 단일모형에 비해 본 연구의 제안모형이 우수하며 이에 근거한 변별타당도는 확립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V. 연구 4: 검사-재검사 신뢰도

연구 4에서는 본 척도가 시간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측정하기 위해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1. 방법

참가자

연구 3에 참가했던 참가자 중 추적이 가능한 163명을 선택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6개월 후 다시 같은 척도로 검사를 하였다. 평균연령은 21.1세였으며 이중 124명이 여성이었다.

방법 및 절차

연구 3의 설문조사가 시작된 지 6개월 후 연구 3과 같은 방식으로 반복측정을 하였다.

2. 결과 및 논의

1차 검사와 2차 검사간의 각 하위 척도간의 상관관계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위 척도들은 약 .4에서 .6정도의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 거의 유사한데, 기존 연구의 재검사 신뢰도가 .3에서 .6정도로 나온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 본 연구의 재검사 신뢰도 역시 기존 연구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정서측정의 경우 보통 짧은 시기(2주에서 3개월)의 재검사 신뢰도가 대략 .7에서 .8정도가 보고되는 편이며, 반면 6개월 이상의 장기 재검사 신뢰도는 .3에서 .7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다(예, Epstein, Hertzog, & Reid., 2001; Garnefski, Kraaij, & Spinhoven, 2001; Garnefski et al., 2007). 이는 비록 정서성의 상당부분이 특질변인으로 간주되고는 있으나 성격이나 기질만큼 안정된 개인차 변인은 아니며, 특정 인생사건이나 일시적 맥락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재검사 신뢰도 역시 6개월 신뢰도라는 점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의 신뢰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 K-HIF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1차 검사	2차 검사		
	긍정정서	부정정서	정서조절
긍정정서	.57***		
부정정서		.54***	
정서조절			.42***

Note: *** $p < .001$

IV. 전체논의

본 연구는 정서경험과 정서조절을 묻는 자필 설문지인 HIF의 한국판 척도를 개발, 타당화 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되었다. 최근 정서와 정서조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은 아직도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대부분의 연구들이 아직도 행동적인 측면에서 정서를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둘째, 정서에 대한 정의상의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였을 때 특정 이론적 근거를 기준으로 제작된 척도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정서조절에 대한 ‘자신의 지각’을 측정하는 타당화된 도구를 개발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후속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본 연구와 기존 외국 연구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차이점은 ‘흥분(excitement)’의 개념이 부정적 정서로 측정되었다는 점이다. 사실 외국의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번역결과에 따라서 그 정서적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은 놀라운 점이 아니며, 하나의 언어가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을 때 발생하는 미묘한 정서적 의미의 차이는 많은 연구에서 지적된 바가 있다(예, Kovacs, 2000; Rusch, 2004; Wierzbicka, 1992). 본 연구는 이중언어자들을 동원해 나름대로 철저한 역번역 작업을 거쳤으며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척도를 새로 구성하는 등 척도번역에 만전을 기했다고 자평하며, 외국의 척도를 단순히 번

역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내 상황에 맞게 몇 단계의 과정을 걸쳐 제작하였다는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와 타당도 지수는 대체로 만족스러웠으며 기존의 연구결과와 상당히 유사함을 보여주었다. 비록 재검사 신뢰도는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한계로서 인정할 수는 있으나 6개월간의 장기 재검사 신뢰도임을 감안한다면 중간정도의 신뢰도 수준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척도가 기본적으로 타당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던지, 아니면 최소한 기존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구인과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외국의 사례와 한국의 사례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정서의 문화차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과 서양의 경우를 비교한 경험적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으며, 동양의 경우 대체로 일본이나 중국(Morling, Kitayama, & Miyamoto, 2002; Stephan, Saito, & Barnett, 1998). 혹은 미국 내 동양계(Gross & John, 1998, 2003; Huang, Leong, & Wagner, 1994; Okazaki, 2002)에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척도의 한국어판이 앞으로 아동기와 초기 청소년기를 거쳐 완전하게 타당화 된다면 앞으로 미국의 자료와 통합하여 보다 광범위한 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며, 이는 한국인의 정서발달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척도 타당화의 첫

단계 연구로써 일단 대학생 1-2학년의 나이대인 만 20세를 전후한 나이로 실시되었다. 원칙도 자체가 학령기 아동에서 초기 성인기까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연령의 선택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의 경우 외국과 다른 정서발달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물론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본 척도의 타당도를 보다 확실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연령대, 특히 아동과 초기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가 시급히 수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실은 이 척도의 장점이자 동시에 본 연구의 한계점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이 척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아동에게도 성인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서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원칙도가 개발된 미국의 경우도 아직 청소년기 이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타당화 연구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비록 원 척도 저자와의 개인적인 회신을 통해 요인구조상 매우 유사하다는 점은 확인이 되었으나 아직 공식적인 논문으로는 발표가 되지 않고 있다 (HIF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개발된 척도로써, 미국과 한국에서 거의 같은 속도로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점에서, 본 연구의 척도를 초기 성인기나 후기 청소년기 이외의 다른 연령대에 즉각 적용하는 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미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청소년기 이후의 척도 타당화 작업은 거의 종료될 시점이며, 한국에서도 아동기를 대상으로 타당화 작업이 곧 시작될 예정이다. 따라서 조만간 이 척도가 개발될 때 고려되었던 ‘다양한 연령대의 적용가능성’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경우 비교문화

연구나 동일 척도를 이용한 장기종단 연구 등 다양한 연구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 척도의 적용을 본 연구에서 타당화가 된 후기 청소년기나 성인기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 민경환, 김지현, 윤석빈, 장승민 (2000). 부정적 정서조절 방략에 대한 연구: 정서종류와 개인 변인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 1-16.
- 손재민 (2005). 정서조절 방략 사용에서의 개인차: 인지적 재해석인과 정서표현 억제인의 비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기학, 이운아, 신주연 (2004). 삶의 의미와 정서조절 양식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 1035-1057.
- 이민규, 김은정, 이현희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정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 935-946.
- 이은경 (2004). 신경증과 외향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성숙, 임전옥 (2003).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조절양식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 259-275.
- 황혜정 (1999). 아동의 정서지능 발달과 정서 행동 문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3, 67-84.
- Allen, J. G., & Haccoun, D. M. (1976). Sex differences in emotionality: A multidimensional approach. *Human Relations*, 29, 711 - 722.
- Asher, S. R., Parkhurst, J. T., Hymel, S., & Williams, G. A. (1990). Peer rejection and loneliness in child-hood.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253-273),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adburn, N. M. (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IL: Aldine.
- Campos, J. J., Mumme, D., Kermoian, R., & Campos, R. (1994). A functionalist perspective on the nature of emotion. In N. Fox (Ed.), *Emotion regulation: Behavioral and biologic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Serial No. 240), 284-303.
- Cole, P. M., Martin, S. E., & Dennis, T. A. (2004). Emotion regulation as a scientific construct: Methodological challenges and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research. *Child Development*, 75, 317-333.
- Diener, M., & Kim, D. (2004). Maternal and child predictors of preschool children's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24.
- Diener, E., Fujita, F., & Seidlitz, L. (1991). *Manual for the intensity and time affect survey (ITAS)*. Champaign, IL: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Diener, E., Larsen, R. J., Levine, E., & Emmons,

- R. A. (1985). Intensity and frequency: Dimensions underlying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253-1265.
- Diener, E., Smith, H., & Fujita, F. (1995). The personality structure of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130-141.
- Dunn, S. C. Seaker, R. F. & Waller, M. A. (1994). Latent variables In business logistics research: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Business Logistics*, 2, 145-172.
- Eisenberg, N., Cumberland, A., Spinrad, T. L., Fabes, R. A., Shepard, S. A., Reiser, M., Murphy, B. C., Losoya, S. H., & Guthrie, I. K. (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2, 1112-1134.
- Eisenberg, N., & Fabes, R. A. (1992). Emotion, regulation, and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M. S. Clark (Ed.), *Emotion and social behavior: Vol. 14.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pp.119-150). Newbury Park, CA: Sage.
- Eisenberg, N., Fabes, R. A., Guthrie, I. K., Murphy, B. C., Maszk, P., Holmgren, R., & Suh, K. (1996).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problem behavior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8, 141-162.
- Eisenberg, N., Pidada, S., & Liew, J. (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negative emotionality to Indonesian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2, 1747-1763.
- Eisenberg, N., & Spinrad, T. (2004). Emotion-related regulation: Sharpening the definition. *Child Development*, 75, 334-339.
- Eisenberg, N., Spinrad, T., Fabes, R. A., Reiser, M., Cumberland, A., Shepard, S., Valiente, C., Losoya, S., Guthrie, I. K., & Thompson, M. (2004). The relations of effortful control and impulsivity to children's resiliency and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5, 25-46.
- Ekman, P. (1992). Are there basic emotions? *Psychological Review*, 99, 550-553.
- Epstein, M. H., Hertzog, M. A., & Reid, R. (2001). The behavioral and emotional rating scale: Long term test-retest reliability. *Behavioral Disorders*, 26, 314-320.
- Feldman Barrett, L. (1998). Discrete emotions or dimensions? The role of valence focus and arousal focus. *Cognition and Emotion*, 12, 579-599.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1311-1327.
- Garnefski, N., Rieffe, C., Jellesma, F., Terwogt, M. M., & Kraaij, V. (2007).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emotional problems in 9-11-year-old children: The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Europe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16, 1-9.
- Gross, J. J. (1998). The emerging field of emotion regulation: An integrative review.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 271-299.

- Gross, J. J., & John, O. P. (1998). Mapping the domain of expressivity: Multimethod evidence for a hierarchical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70-191.
- Hanish, L., Eisenberg, N., Fabes, R. A., Spinrad, T., Ryan, P., & Schmidt, S. (2004). The expression and regulation of negative emotions: Risk factors for young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16, 335-353.
- Harris, V., Walden, T. A., Kim, G., Karrass, J., & Catron, T. (2003). *Emotion processes and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sychopathology in school-aged children*.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for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Tampa, FL.
- Huang, K., Leong, F. T. L., & Wagner, N. S. (1994). Coping with peer stressors and associated dysphoria: Acculturation differences among Chinese-American children.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7, 53-69.
- James, W. (189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Vol. 2., New York: Holt.
- Keane, S. P. & Calkins, S. D. (2004). Predicting kindergarten peer social status from toddler and preschool problem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2, 409-423.
- Kim, G., Walden, T. A., Harris, V., Karrass, J., & Catron, T. (2007). Positive emotion, negative emotion, and emotion control in the externalizing problems of school-aged childre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7, 221-239.
- Kishton, J. M., & Widaman, K. F. (1994). Unidimensional versus domain representative parceling of questionnaire items: An empirical example. *Educational Psychological Measurement*, 54, 757-765.
- Kochanska, G., Aksan, N., Penney, S. J., & Doobay, A. F. (2007). Early positive emotionality as a heterogenous trait: Implications for children's self-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 1054-1066.
- Kochanska, G., & Knaack, A. (2003). Effortful control as a personality characteristic of young children: Antecedents, correlat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Personality*, 71, 1087-1112.
- Kochanska, G., Murray, K. T., & Harlan, E. T. (2000). Effortful control in early childhood: Continuity and change, antecedents, and implications for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6, 220 - 232.
- Kopp, C. B. (1989).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A developmental re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43-354.
- Kovacs, Z. (2000). The concept of anger: Universal or culture specific? *Psychopathology*, 33, 159-170.
- Lazarus, R. S. (1991). Cognition and motivation in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46, 352-367.
- Lemery, K. S., Essex, M. J., & Smider, N. A. (2002). Revealing the relation between temperament and behavior problem symptoms by eliminating measurement confounding: Expert ratings and factor analyses. *Child Development*, 73, 867-882.
- Loeber, R., Green, S. M., & Lahey, B. B. (1990).

- Mental health professionals' perception of the utility of children, mothers, and teachers as informants of childhood patholog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136-143.
- Morling, B., Kitayama, S., & Miyamoto, Y. (2002). Cultural practices emphasize influence in the United States and adjustment in Japa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 311-323.
- Nolen-Hoeksema, S. (1987). Sex differences in unipolar depression: Evidence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01, 259 - 282.
- Oatley, K. (2004). *Emotions: A brief history*. Malden, MA: Blackwell
- Okazaki, S. (2002). Self-other agreement on affective distress scales in Asian Americans and White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428-437.
- Ollendick, T. H., & Hersen, M. (Eds.) (1993). *Handbook of child and adolescent assessment*. Boston: Allyn And Bacon.
- Putnam, S. P., Gartstein, M. A., & Rothbart, M. K. (2006). Measurement of fine-grained aspects of toddler temperament: The Early 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9, 386 - 401.
- Rossmann, B. R. (1992). School-age children's perceptions of coping with distress: Strategies for emotion regulation and the moderation of adjust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3, 1373-1397.
- Rotter, N. G., & Rotter, G. S. (1988). Sex differences in the encoding and decoding of negative facial emotion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12, 139 - 148.
- Rusch, C. D. (2004). Cross-cultural variability of the semantic domain of emotion terms: An examination of English shame and embarrassment with Japanese hazukashii. *Cross-Cultural Research: The Journal of Comparative Social Science*, 38, 236-248.
- Russell, J. A., & Feldman Barrett, L. (1999). Core affect, prototypical emotional episodes, and other things called emotion: Dissecting the elepha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805 - 819.
- Saarni, C., Mumme, D. L., & Campos, J. J. (1998). Emotional development: Action,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In W. Damon & N. Eisenberg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5th Ed. Vol.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pp.237-309). New York: John Wiley & Sons.
- Scherer, K. R., Wallbott, H. G., & Summerfield, A. B. (1986). *Experiencing emotion: A cross-cultural study*.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ields, A., & Cicchetti, D. (1998).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The contributions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 381-395.
- Simon, R. W., & Nath, L. E. (2004). Gender and emotion in the United States: Do men and women differ in self-reports of feelings and expressive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 1137-1176.
- Spinrad, T. L., Eisenberg, N. Gaertner, B., Popp,

- T., Smith, C. L., Kupfer, A., Greving, K., Liew, J., & Hofer, C. (2006). Relations of maternal socialization and toddlers' effortful control to children's adjustment and social compet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3, 1170-1186.
- Stearns, P. N. (2000). History of emotions: Issues of change and impact. In M. Lewis & J. M. Haviland-Jones (Eds.), *Handbook of emotions*, 2nd Ed.(pp.16-29), New York: Guilford
- Stephan, C. W., Saito, I., & Barnett, S. M. (1998). Emotional expression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 nonmonolithic nature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9, 728-749.
- Stocker, C. M., Richmond, M. K., Rhoades, G. K., & Kiang, L. (2007). Family emotional processes and adolescents' adjustment. *Social Development*, 16, 310-325.
- Thompson, R. A. (1994). Emotional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In N. Fox (Ed.), *Emotion regulation: Behavioral and biologic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 (2-3, Serial No. 240), 25-52.
- Tull, M. T. & Roemer, L. (2007). Emotion regulation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the experience of uncued panic attacks: Evidence of experiential avoidance, emotional nonacceptance, and decreased emotional clarity. *Behavior Therapy*, 38, 378-391.
- Walden, T., Harris, V., & Catron, T. (2003). How I Feel: A self-report measure of emotional arousal and regulation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15, 399-412.
- Walden, T., Karrass, J., Harris, V., Kim, G., & Catron, T. (submitted). *The role of emotional arousal and control in children's somatic complaints: Negative emotion mediates sex differences in somatic complaints*, Motivation and Emotion.
- Walden, T., & Smith, M. C. (1997). Emotion regulation. *Motivation and Emotion*, 21, 7-24.
-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Watson, D., & Tellegen, A. (1985). Toward a consensual structure of mood. *Psychological Bulletin*, 98, 219-235.
- Wierzbicka, A. (1992). Talking about emotions: Semantics, culture, and cognition. *Cognition and Emotion*, 6, 285-319.
- Zevon, M. A., & Tellegen, A. (1982). The structure of mood change: An idiographic /nomothetic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111-122.
- Zuckerman, M., Lipets, M. S., Hall Koivumaki, J., & Rosenthal, R. (1975). Encoding and decoding nonverbal cues of emo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1068-1076.

1 차원고접수 : 2009. 03. 02.

수정원고접수 : 2009. 06. 05.

최종게재결정 : 2009. 06. 12.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HOW I FEEL (K-HIF) Questionnaire: Focusing on late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Kim, Geunyoung

Department of Psychology
Hallym University

Yang, Jae-Won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While emotion control has intrigued many developmentalists since 2000, self-report questionnaires for measuring emotion control have been criticized for their lack of theoretical pedigree and developmental continu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to validate the K-HIF (Korean HOW I FEEL) questionnaire, a self-report measure of emotional arousal and regulation originally developed by Walden et al (2003). Item translations to Korean and back-translations to English were conducted by bilingual experts, and a series of scale validation processes were administrated with 640 college students. The factor structures of Korean late adolescents' K-HIF scores were comparable to those of American children's and adolescents', and the measure overall demonstrated satisfactory reliability and validity.

Key words : emotional control, measure of emotion, adolescents and adults, the HIF

부 록

한국판 자기지각 정서척도 (K-HIF)

다음은 여러분이 3개월간 느꼈던 감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의 질문에는 옳고 그르고의 답은 없으며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히 답변만 해주면 됩니다. 질문을 잘 읽고 적절한 곳에 ☒ 표시 해주세요.

- 1) (지난 3개월간 나는) 매우 자주 행복했다
- 2) (지난 3개월간 나는) 슬프다고 느꼈을 때, 그 슬픈 감정은 매우 강렬했다
- 3) (지난 3개월간 나는) 화가 나는 횟수를 조절할 수 있었다
- 4) (지난 3개월간 나는) 거의 항상 짜릿함을 느꼈다
- 5) (지난 3개월간 나는) 두렵다고 느꼈을 때, 그 두려운 감정들은 매우 위력적이었다
- 6) (지난 3개월간 나는) 행복하다고 느꼈을 때, 그 행복감의 정도를 조절하거나 바꿀 수 있었다
- 7) (지난 3개월간 나는) 매우 자주 슬펐다
- 8) (지난 3개월간 나는) 화가 났을 때, 그 분노감은 매우 강렬했다
- 9) (지난 3개월간 나는) 짜릿함을 느꼈던 횟수를 조절할 수 있었다
- 10) (지난 3개월간 나는) 거의 항상 두려웠다
- 11) (지난 3개월간 나는) 행복하다고 느꼈을 때, 그 행복한 감정들은 매우 위력적이었다
- 12) (지난 3개월간 나는) 슬펐을 때, 그 슬픔의 정도를 조절하거나 바꿀 수 있었다
- 13) (지난 3개월간 나는) 매우 자주 화가 났다
- 14) (지난 3개월간 나는) 짜릿했을 때, 그 흥분감은 매우 강렬했다
- 15) (지난 3개월간 나는) 두려웠던 횟수를 조절할 수 있었다
- 16) (지난 3개월간 나는) 거의 항상 행복했다
- 17) (지난 3개월간 나는) 슬펐을 때, 그 슬픈 감정들은 매우 위력적이었다
- 18) (지난 3개월간 나는) 화가 났을 때, 그 분노의 정도를 조절하거나 바꿀 수 있었다
- 19) (지난 3개월간 나는) 매우 자주 짜릿함을 느꼈다
- 20) (지난 3개월간 나는) 두려웠을 때, 그 두려운 감정들은 매우 강렬했다
- 21) (지난 3개월간 나는) 행복감을 느꼈던 횟수를 조절할 수 있었다
- 22) (지난 3개월간 나는) 거의 항상 슬펐다
- 23) (지난 3개월간 나는) 화가 났을 때, 그 분노의 감정은 매우 위력적이었다
- 24) (지난 3개월간 나는) 짜릿함을 느꼈을 때, 그 흥분의 정도를 조절하거나 바꿀 수 있었다
- 25) (지난 3개월간 나는) 매우 자주 두려웠다
- 26) (지난 3개월간 나는) 행복감을 느꼈을 때, 그 행복감은 매우 강렬했다
- 27) (지난 3개월간 나는) 슬픈 감정을 느낀 횟수를 조절할 수 있었다
- 28) (지난 3개월간 나는) 거의 항상 화가 났다
- 29) (지난 3개월간 나는) 짜릿함을 느꼈을 때, 그 흥분감은 매우 위력적이었다
- 30) (지난 3개월간 나는) 두려웠을 때, 그 두려움의 정도를 조절하거나 바꿀 수 있었다